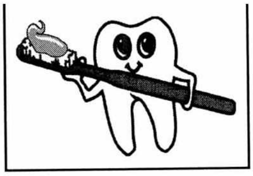


건강관리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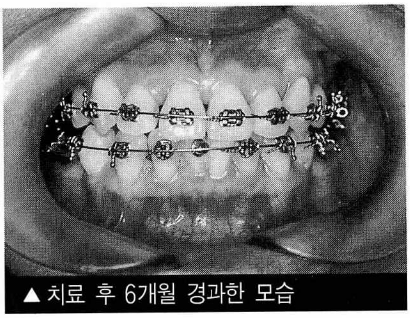
성인환자의 교정치료

잘 배열된 치아와 밝은 미소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 일으킨다.

오복의 하나로 꼽히는 치아건강이지만 그저 '복'으로 저절로 굴러 들어오길 바란다면 이를 얻기란 매우 힘들 것이다. 전신적인 건강관리와 마찬가지로 구강건강 역시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치열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었거나 전방으로 돌출된 상태를 부정교합이라고 한다. 부정교합은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손상된 치아나 안모의 심미적 문제와 관련된 사회심리적 문제, 구강 기능상의 문제,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치주질환과 우식증의 증가 및 외상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다.

▲ 불규칙한 치열의 성인환자(36세, 여)



▲ 치료 후 6개월 경과한 모습

교정치료를 통해 이러한 부정교합을 치료할 수 있으며 이제까지는 주로 성장중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성인교정환자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70년대에는 5% 미만이었던 성인환자의 비중이 90년대에는 2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성인 교정환자의 증가는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치과적 문제(치아의 상실, 치주염 등)를 가진 많은 성인들이 교정치료를 받음으로써 치과질환의 조절이 더 용이해지며 상실된 치아의 수복을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치아가 상실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인접한 치아는 그 자리로 쓰러지게 되며 그 치아와 접촉하는 반대측의 치아는 상실된 공간으로 자라나서 막상 치아를 수복해야 할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또한 진행된 치주염(잇몸병)으로 치아의 지지가 약해지면 치아사이에 없던 공간이 형성되고 치아가 길어지는 등 심미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경우 간단한 교정치료를 통해서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교정장치도 심미성의 개선을 위해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크기를 더욱 줄인다거나 치아 색과 같은 투명한 장치도 개발되었으며, 겉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설측으로 장치를 붙일 수도 있어 전문의와 상의한다면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내용과 장치를 선택할 수 있다.

막연하게 교정치료라면 어린아이나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저만치 미루어 놓는다면 보다 질 좋은 치료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혹시나 이런 생각들로 치료를 미루어 왔다면 바로 치과를 찾아 상담하시기를 권한다. 더 많은 기회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터이므로...

정 미 향 | 을지병원 치과진료부 교정과장